

## 중국 가족에서의 여성의 지위\* 6개 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송 유 진\*\*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국 여성의 가족 내 지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는 중국 여성의 지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얻기 위하여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자녀 양육과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성역할 분담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6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과 상해와 산둥 지역에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통합적으로 이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주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둘째,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 활동보다 의사결정 과정에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율은 농촌에 비해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의사결정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 아버지들의 참여율이 더 높다. 넷째,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대한 가치관도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가족 내 여성의 지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가족에서 자녀 양육 책임이 동등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여성의 이중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 단어:** 중국 가족, 성역할 분담, 자녀 양육, 의사결정 과정, 여성의 지위

### I. 서론

중국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산에의 기여와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여성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이며, 2004년 12월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논평을 해주신 김성훈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분들께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다. 그 외에도 교육기회 증대, 보건위생 증진, 정치활동 참여 장려 등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자동적으로 가족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여성의 가족에서의 지위와 성 평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했기에 현대 중국 여성의 지위는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 여성의 이중부담을 지적하고 있다(Croll, 1983; Riley, 1995; Stacey, 1983; Tsui, 1989; Weeks, 1989). 여성의 이중부담은 중국 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지적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는 중국의 경우 여성의 가족 내 지위는 어떠한지, 가족 내에서 성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하여 자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 분담을 연구하는 것은 여성의 이중부담과 가족 내 지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중국 정부는 계급 불평등과 성별 불평등 타파를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산 부문에의 기여와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기회 증대, 정치활동 장려, 혼인법 개정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한 목적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Teich and Teich, 1980). 또한 시기별로 다르게 제시되는 중국 정부의 정책들을 인용하며 여성의 노동력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부의 원래 목적에 상관없이 정책적인 노력이 적어도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에 공헌했음에 동의한다(김순영, 1993; 한지아령, 1999; Das Gupta et al, 2000). 20세부터 44세 이하 중국 여성의 90%가 취업을 하고 있는 점(중국통계청, 1998)과 정부 관료 중 30% 이상이 여성인 점(Riley, 1995) 등이 그 예로 제시된다. 덧붙여,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기회가 늘어난 것과 혼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적어도 법적으로는 성 평등이 지향되고 있음도 중요한 예로 지적된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법적 지원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족에

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중국 여성의 지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별 차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중국 여성의 지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하기 어렵다.

중국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연구한 소수의 학자들은 과거에 비하여 전반적인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으나,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주장한다(이온죽 외, 1999; Croll, 1983; Riley, 1995; Weeks, 1989).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으나, 남성의 가사분담이나 자녀 양육 분담에 대한 장려는 미약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또한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성 평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성별 분업적 사고방식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과 가족적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의 괴리는 중국 여성을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이온죽 외, 1999; Croll, 1983; Riley, 1995; Weeks, 1989).

위와 같은 기존 연구는 직접적인 자료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기 보다는 이차적인 통계 자료나 인류학적 조사에 의존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중국 여성의 지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 활동 참가율에 근거한 공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분담과 의사결정권 등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소수의 기존 연구는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 여성의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김순영, 1993; 장경섭, 1995; Riley, 1995; Wolf, 1985). 즉, 도시의 경우는 정책적 영향의 결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나 농촌은 정책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문화혁명과 기타 정책적인 교육의 결과,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인 가치가 도시 지역에서는 약화되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뿐 아니라 가족에서의 가사분담과 의사결정권도 도시와 농촌 지역간 차이가 있음이 제시된다(Lu et al, 2000; Wolf, 1985).

이렇듯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차이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과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비교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수의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 비교연구는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가족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비교분석적 논의는 미미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제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중국 6개 지역 도시와 농촌 가족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자녀 양육 분담과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중국 여성의 가족에서의 지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

### 1. 중국 가족 내 여성의 지위: 자녀 양육과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전통 사회에서 중국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유교적 가부장 문화에 기초하여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종속되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경제 부양, 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의 책임이 확실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모택동 시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으로써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약진 운동기에는 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 하에 공동 식당과 공동 세탁, 공동 탁아 등 가족의 기능을 사회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문화혁명기에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와 가부장적 문화를 파괴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대약진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함이었으며, 문화혁명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거 전통을 파괴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수립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약진 운동이 시도한 가족의 집단화 현상은 실패로 끝났고, 문화혁명의 영향력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 두 가지 현상, 특히 문화혁명기의 교육이 중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가족과 여성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어도 중국 도시 가족의 경우는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그리고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Diamant, 2000; Wolf, 1985).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비교우위 관점에서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직종 분리 등이 등장하여 생산활동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였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장경섭,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현대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시기에 따른 변화는 있

었으나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면, 중국 여성의 가족 내 지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가족에서의 지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 분담과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에 의하면, 자녀 양육을 포함한 집안일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의사결정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대비되는 영역이 가족 내에서 얼마나 평등하게 분담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가족에서의 성 평등 정도와 여성의 지위를 논의한다.

중국 여성의 가족 내 지위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국 도시 가족의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사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국 남성이 하루 평균 집안일에 보내는 시간은 1.4시간으로써 이는 여성의 2.6시간에 비하면 적으나 미국 남성들의 0.6시간에 비하면 긴 것으로 나타났다(Tang and Parish, 2000). 중국과 대만 가족의 가사 분담 시간을 비교해도 중국 남성이 대만 남성에 비해 높은 가사 분담률을 보였다(Tang and Parish, 2000). 또한 중국 8개 도시와 농촌 지역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 양육을 포함한 집안일에 한 주일 평균 소요시간은 도시 지역 남성이 16.15시간, 농촌 지역 남성이 12.52시간으로 나타났다(Lu et al, 2000). 이는 물론 도시 여성의 53.7시간과 농촌 여성의 53.29시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국 가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서 여성의 지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동시대의 중국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여전히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의 경우도 남성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Wolf(1985)의 인류학적 연구에 잘 드러난다. Wolf(1985)는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주 책임을 지는 반면, 의사결정은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로 여겨져서 남성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한 예로 농촌 여성들은 비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경제적인 보수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사일을 하는 것이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것보다 시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자녀 교육과 기타 가족관련 의사결정은 권력 행사로 여겨져서 남성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자녀 양육

을 기타 집안일과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안일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 일은 기계나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의해 대체 가능하거나 타인에의 의존으로 부담과 책임감이 크게 감소될 수 있으나, 자녀 양육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녀 양육은 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 수행을 알아보기에 가장 적합한 측정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인 한 자녀 정책의 실시로 자녀의 중요성은 커진 반면 사회복지 체제는 약화되고 탁아소의 시설과 비용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자녀 양육이 가족의 책임으로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중국에서 자녀 양육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최근 들어 중국 가족에서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Chen et al, 2000; Short et al, 2001a, 2002b). 그러나 이 연구들은 조부모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와 여성의 취업 형태에 따른 자녀 양육에의 소요 시간 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부모의 도움, 주로 할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 분담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면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는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 양육 분담과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축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차이점은 자녀 양육을 집안일의 일부로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룬다는 점과 아버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에 따르면 자녀 양육은 여성의 일로, 의사결정 과정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도시와 농촌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 남성들은 자녀 양육보다는 의사결정에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다. 즉 아직까지도 중국 가족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이 남아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도시 지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농촌 지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의 자녀 양육과 의사결정 분담률이 농촌 지역에 비해 높을 것이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과 가족 내에서 실제적인 행동은 지역별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한다.

## 2. 자녀 양육 분담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녀 양육 분담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원-권력 이론, 필요-반응 능력 이론, 그리고 성역할 이론을 이용한다(Baxter, 1992; Coltrane, 1996, Coverman, 1985; Goldscheider and Waite, 1991; Kamo, 1994; Ross, 1987). 위의 이론들은 서양의 맥락에서 가사 분담을 중심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양의 상황과 집안일과는 구분되는 자녀 양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의 이론들에 근거하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이론을 적용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은 자녀 양육과도 또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위 이론들을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자원-권력(Relative Resources-Power theory) 이론은 부부 관계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 이론을 적용하여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 분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자녀 양육을 포함한 집안일은 일반적으로 보상이 적고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사람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부 관계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원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피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자원-권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주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이용된다. 그러나 교육 수준은 권력 행사를 위한 자원으로도 이용될 수 있지만 평등적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일관적인 결론을 찾기 어렵다. 부부간 소득 수준의 차이나 소득비도 자원-권력을 측정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경우 부부 모두 일을 하지만 소득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 연구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회의 특수성, 즉 전통적으로 성별과 나이에 따라 권력 관계가 유지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자원-권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부부간 나이 차이를 이용한다.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부부간 나이차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직접적인 참여는 적을 것으로 가정한다.

필요-반응 능력(Demand-Availability theory) 이론은 자녀 양육과 가사에 요구되는 시간과 부부 각각이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집안일이 분담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 여부나 부부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측정 도구로 이용하였다(Bianchi, 2000; Coltrane, 1996; Coverman, 198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여성이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고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에의 요구가 커지므로 남편의 참여율이 높아

진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중국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므로 이 연구는 필요-반응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여성의 취업 관련 변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 여성의 취업 형태의 특성이 다르므로 관련 변수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한다. 중국 도시 지역에서는 여성의 공식적 취업이 보편화 되었고 취업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부부가 각각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측정 도구로 사용한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구 소득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취업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 여부를 측정 도구로 사용한다.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가족경제 영위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머니의 취업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 부부간 역할과 시간 배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여성의 취업 관련 변수는 달리 이용하지만, 어머니의 취업과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에 정비례할 것을 가정한다. 반면 아버지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들의 자녀 양육 참여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부부가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요구되는 시간 역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영유아기 시기가 양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자녀의 나이가 들수록 양육에 대한 요구는 감소한다(Bianchi, 2000). 이 연구 역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에 요구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버지의 참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양육에 요구되는 시간이 늘어나서 아버지들의 참여도 늘어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1979년 이후 한 자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자녀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농촌 지역에서는 정책의 적용에 있어 융통성이 발휘되므로 두 자녀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수와 양육 분담에 대한 가설은 기존의 필요-반응 능력 이론을 적용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한 자녀 정책의 결과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녀의 수와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는 반비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조부모가 같이 살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아버지의 참여가 줄어들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자녀 양육에 요구 및 소요되는 시간을 조부모가 분담해 줌으로써 아버지 참여에의 요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역할 이론(Gender Ideology theory)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각각의 성에 맞는 역할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고 이를 내면화한다고 가정한다.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이란 파슨스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은 도구적 역할로서 경제 부양을 담당하고 여성은 표현적 역할로서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 이론은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내면화한 부부는 분리된 성역할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평등한 가치와 성역할을 수용한 부부는 고정된 성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성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한다고 전제한다.

성역할 분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주로 교육 수준이나 나이를 고려한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교육 수준이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은 복잡하다. 즉 자원-권력 이론의 측정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역할 이론의 측정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 하에 성 평등과 계급 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교육기회 증진에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문맹률 감소, 여성의 교육기회 증진,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 등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표면적인 수준에서라도 교육을 통하여 성 평등 가치관이 주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연구에서는 성역할 이론을 측정하는 도구로 교육 수준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분담률이 높을 것으로 가정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과 교육에 더욱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참여도 높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자녀 양육 분담률, 특히 아버지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 뿐 아니라 아버지의 나이 역시 성역할 이론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사회와 가치관 변화에의 적응이 느린 것으로 나타난다. 성 평등 가치관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젊은이들에 비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를 내면화할 확률이 높아서 자녀 양육에의 참여도 적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도시 지역에서는 부모에 의한 혼인 결정이나 중매혼이 거의 사라졌으나 농촌 지역에는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iley, 1994). 중국 농촌 지역의 중매혼은 그 의미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 하였으나, 부모의 혼

인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개입, 신부대금과 지참금 등 전통적인 가치관과 형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유지되는 전통적인 가치관들은 결혼 이후 생활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성역할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경우에만 성역할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중매혼을 이용한다.

이 외에도 기존 이론과는 관련이 없으나, 동양의 남아선호 사상도 자녀 양육 분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역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한 자녀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도시 지역에서는 약화되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아들을 가지기 위해 여아 유기, 살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아 선호 사상에 근거하여 자녀가 아들이 될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도 주로 위의 이론들에 근거한다. 그러나 의사결정과 자녀 양육은 본질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론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의사결정은 자녀 양육과는 달리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며 남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은 자녀의 나이와 관련이 있으며, 자녀 양육에 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성역할 이론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농촌 지역에서는 중매혼인 경우가 연애혼인 경우보다 아버지의 의사결정 참여율이 높아질 것을 가정한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가진 남성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자원-권력 이론에 근거하여 부부 나이차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부부 나이차가 적을수록 등등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가정한다. 자녀 양육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수를 필요-반응 이론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는 자녀 양육에 요구되는 에너지와 시간이 많음을 전제하여 자녀 양육에의 요구와 개인의 시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 분담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시간보다는 권력이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하여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인을 자원-권력 이론의 측정 도구로 사용한다. 즉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어머니의 취업 시간이 많을수록 가구 소득에의 기여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여 아버지의 참여가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 연구는 의사결정을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자녀가 나이 들수록 교육과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진다. 이는 곧 의사결정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필요-반응 능력 이론에 근거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는 아버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조부모의 참여율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참여가 낮아질 것으로, 그리고 자녀가 아들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한다. 자녀 양육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을 성역할 이론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교육 수준을 필요-반응 능력 이론의 측정 도구로 사용한다. 자녀 양육의 경우에는 반응 능력이 시간의 가용성을 의미하였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의 의사결정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이론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연구가설

아버지의 자녀양육과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관련 가설		
개인적 변인과 가족적 변인	예상되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예상되는 아버지의 의사결정 참여도
아버지의 나이	-	+
부부간 나이차	-	+
어머니의 교육수준	+	-
아버지의 교육수준	+	+
배우자 선택 양상: 종매(농촌)	-	+
어머니의 취업	+	-
자녀의 수	+	+
자녀의 나이	-	+
자녀의 성별(아들)	+	+
동거하는 조부모 수	-	-

### Ⅲ. 자료 및 방법

이 연구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양적인 방법으로는 “현대 중국에서의 여성의 지위(1991)”<sup>1)</sup>라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표 2> 참조).

〈표 2〉 통계자료의 특성

	중국(도시)	중국(농촌)
조사실행년도	1991	1991
총 조사대상 수	4,509쌍 부부	4,524쌍 부부
조사대상의 나이	15-82	15-80
조사대상의 결혼상태	현재 기혼상태	현재 기혼상태
조사대상의 성별	남녀 모두	남녀 모두

주: 표에 제시된 정보는 총 조사대상에 관련된 내용이며,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선택되어 사용된 대상의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 응답 중 여성의 응답만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대상의 총 수는 도시의 경우 3701명, 농촌의 경우 4133명이다. 조사대상의 나이도 도시의 경우는 19-47세이고 농촌의 경우는 17-49세이다.

이 자료는 6개 지역(Shanghai, Jilin, Ningxia, Shandong, Guangdong, Shanxi)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진 조사이다. 조사대상 6개 지역은 지리적 위치, 경제 발전 정도, 문화 등에 차이가 있다. Ningxia와 Shanxi는 내륙, Shanghai와 Shandong은 동쪽, Guangdong은 남쪽, Jilin은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남쪽과 북쪽 지역은 언어, 문화 등에 차이가 있다. 또한 내륙 지방은 경제발전 정도가 매우 낮고 Shanghai와 Shandong, Guangdong 지역은 빠르게 경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sup>2)</sup>. Jilin은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는 곳으로 소수민족의 거주율이 높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여 중국 여성의 지위를 알아보고자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위의 6개 지역은 상해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省)으로써 규모가 크다. 각각의 성(省) 내에서도 발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성(省)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부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sup>3)</sup>. 도시와 농촌 지역은 사회 경제 발전 정도, 종사하는 일의 종류와 상황, 자녀 교육 여건 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설문 문항 중 일부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다르다.

- 1) 이 조사는 유엔의 지원을 받아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와 중국사회과학원이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비교적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연구를 수행하는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주제에 적합한 것이어서 사용되었다.
- 2) 1990년의 1인당 GNP를 중심으로 경제발전 정도를 살펴보면, Shanghai시가 4,822원(元)으로 가장 높고, Guangdong이 1,845원, Shandong이 1,362원, Jilin이 1,383원, Shanxi가 1,114원, Ningxia가 1,089원이다(Yi and Deqing, 2000에서 재인용).
- 3)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응답 중 여성의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참고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도시와 농촌 지역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설문 문항도 일부 차이가 있다.

이렇듯 각기 다르게 작성된 설문 문항 자체만으로도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에 관한 항목을 보면 도시의 경우는 ‘자녀 학습지도’와 ‘기타 양육 활동’으로 구분되어 두 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나, 농촌의 경우는 ‘자녀 양육’이라는 한 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sup>4)</sup>. 즉,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는 자녀 교육이 기타 양육 활동과 구분되어 인식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의 교육 수준은 농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학습지도에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자녀 학습지도’라는 항목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는 교육 수준이 낮아서 자녀의 학습지도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자녀 교육 관련 문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 교육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항목을 보면 도시의 경우는 ‘자녀 진학 결정’이라는 한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으나, 농촌의 경우는 ‘자녀 교육 시작 시기 결정’과 ‘자녀 교육 지속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즉, 농업에 의 의존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녀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과 고등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녀를 교육시킴으로써 농업 노동력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녀 양육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는 모두 “누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응답 항목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 함께,’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그 외 기타 가족 구성원들이 제시되었다<sup>5)</sup>. 이 연구는 자녀 양육 분담 실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는 것, 특히 아버지의 참여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를 어떤 형태로든지 아버지가 위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즉, 아버지 혼자만의 참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한 경우는 아버지의 참여로 고려하였고, 어머니 혼자만의 참여와 그 외 다른 이들의 참여는 아버지의 불참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아버지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버지의 참여를 중심으로 가족 내에서의 분담의 유형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이후 중국 상해와 산둥 지역에서 각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표 3> 참조).

4)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항목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내용들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사 대상을 첫째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5) ‘해당 사항 없음’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 그룹 인터뷰의 특성

	중국 도시 (상해)	중국 농촌 (산동성 제남시)
인터뷰 실행년도	2002	2002
총 대상 수	56명(남26명, 여 30명)	49명(남 25명, 여 24명)
인터뷰 그룹 수	9 그룹	6 그룹
조사대상의 나이	26-50	24-49
조사대상의 결혼상태	기혼	기혼
조사대상의 성별	남녀	남녀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은 첫째, 조사가 이루어진 1991년 당시의 상황과 중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 분석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둘째,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성역할 분담에 대한 중국인들의 가치관과 실제 가족생활을 이해하고, 셋째, 최근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에 근거하여 중국 여성의 지위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양적 자료와의 시간적 차이를 메우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되 이차자료 분석에서 발생하는 제한점과 오래된 자료의 제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0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면 중국 여성의 지위에 대한 잠정적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설과는 다른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온 경우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1991년 당시의 상황과 중국 사회의 특징 등을 논의함으로써 잠정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해와 산동 지역의 선정은 통계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6개 조사 지역 중 현실적으로 포커스 그룹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해시는 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곳으로, 산동성 제남시는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곳으로 선정되었다. 산동성 제남시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곳으로 사실상 중국 농촌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계 자료에서 이용된 6개 지역 중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1999년 제남시의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59%로 나타났으므로(중국 통계청) 상해시에 비교하여 대비되는 농촌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편집의 주제가 자녀 양육과 교육관련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해시와 산동성 제남시에 있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구의 취지를 알리

고 학부모들의 인터뷰 참여를 부탁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참여할 의사를 밝힌 기관들 중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몇몇 기관들이 선택되었고, 이 기관들은 학부모들에게 또다시 편지를 발송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통계 분석에서는 여성의 응답만을 분석하였으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포괄하고자 부부가 아닌 기혼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통계 분석 결과

아래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도시와 농촌 가족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율은 도시 지역의 '자녀 학습지도'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는 아버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율은 지역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예상한대로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보다 의사결정 과정에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또한 자녀 양육 활동의 경우는 도시 지역의 아버지들이 농촌 지역의 아버지들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의사결정 과정은 농촌 지역의 아버지들이 도시 지역의 아버지들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표 4> 아버지의 자녀 양육과 의사결정 참여율의 항목별 비교: 중국 도시와 농촌 가족

항목	도시		항목	농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녀 학습지도 (N=2454)	44.00	56.00	자녀 양육(N=3972)	95.82	4.18
기타 자녀양육 (N=2997)	82.00	18.00	자녀 교육 시작 시기 결정 (N=3655)	91.05	8.95
자녀 진학 결정 (N=2350)	17.08	82.92	자녀 교육 지속여부 결정 (N=3380)	88.91	11.09

주: 항목별 총 응답자의 차이는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결측값을 제외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가 가장 높이 나타난 것은 중국 도시 지역의 '자

녀 학습지도' 항목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도시 지역 응답자들의 성별 평균 교육 년수는 남자의 경우 10.72년, 여자의 경우 9.87년으로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농촌 지역의 성별 평균 교육 년수인 남자 6.99년과 여자 4.78년에 비하면 전반적인 수준도 높고 성별 차이도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학습지도의 경우에는 성별 교육수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몇몇 대도시에서 사설학원을 통한 학습지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경향이 보편적이지 않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조사가 실시된 90년대 초반에는 학교교육과 부모를 통한 도움을 제외한 기타 학습지도의 기회는 거의 없었음이 지적된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 수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차이가 자녀 학습지도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 외 자녀 양육 활동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역할을 담당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모두 80-90%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곧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 활동은 아직도 어머니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어머니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가족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어떤 형태로든 아버지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에 비하여 농촌 지역의 경우는 의사결정 과정에의 아버지의 참여가 자녀 양육 활동에의 참여와 대비되어 부각되어진다. 이는 기존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 과정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자녀 양육 활동에 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적으므로 아버지의 참여가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인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는 어떤 형태이든지 관계없이 아버지의 참여와 불참여로 구분하였다. 아버지의 참여에는 아버지 단독 참여 혹은 어머니와 공동 참여가 포함되고 아버지 불참여의 경우는 어머니 단독 참여나 기타 다른 가족들의 참여가 포함된다(<표 5> 참조)<sup>6)</sup>.

도시 지역에서 아버지의 자녀 학습지도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 자녀의 성별,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직장에서 보내

6) 개인적 변인들과 가족적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포함한 결과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들과 가족적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최종 결과만을 제시한다.



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아들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아버지의 자녀 학습지도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자녀 학습지도에의 참여는 부적의 관계를 보인다.

<표 5>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중국 도시와 농촌 가족

변인	도시 자녀 학습 지도 (Odds ratio)	도시 기타 자녀 양육 (Odds ratio)	농촌 자녀 양육 (Odds ratio)
아버지의 나이	0.987 <sup>###</sup>	0.992 <sup>#</sup>	1.034 <sup>*</sup>
부부간 나이차	1.000	1.000	0.999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비취업)	---	---	1.766 <sup>***</sup>
어머니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1.035 <sup>#</sup>	1.130 <sup>***</sup>	---
아버지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0.987	0.947	---
어머니의 교육수준	0.620 <sup>***</sup>	1.042	1.213 <sup>#</sup>
아버지의 교육수준	1.527 <sup>***</sup>	1.022	1.080
배우자 선택 양상 (중매/연애)	---	---	0.478 <sup>*</sup>
자녀의 수	1.176	0.877	0.923
자녀의 성별 (1명 이상의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이 없는 경우)	1.180 <sup>*</sup>	1.163	1.214
자녀의 나이	1.068 <sup>***</sup>	0.989	0.969
같이 거주하는 조부모의 수	0.942	0.780 <sup>**</sup>	0.873
Likelihood Ratio	143.847 <sup>***</sup>	46.550 <sup>***</sup>	35.268 <sup>***</sup>
총 응답자	2454	2997	3972

주 1: # 표시는 개인적 변인만을 분석하였을 때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었으나 가족 변인을 포함한 최종 결과에서는 유의미성이 사라진 경우에 사용한다. #의 개수는 개인적 변인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 나타난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를 표시한다.

주 2: \* p<.05, \*\*p<.01, \*\*\* p<.001

이 중에서 연구 가설과 반대되는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나이이다. 이는 기타 자녀 양육 활동과 구분되는 자녀 학습지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 중 중국 도시 지역 부부의 성별 평균 교육 연수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여전히 존재하므로, 자녀 학습지도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유의미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의 영향력은 기타 자녀 양육 활동의 경우는 나이가 어

릴수록 양육에의 요구가 많아지지만, 자녀 학습지도는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와 아버지의 참여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가족의 기타 자녀 양육 활동과 농촌 가족의 자녀 양육 활동을 살펴보면, 경향성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 모두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어머니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영향력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는 도시의 경우는 동거하는 조부모의 수가, 그리고 농촌의 경우는 중매혼이 아버지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농촌 가족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아버지의 나이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표 6> 아버지의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중국 도시와 농촌 가족

변 인	도시 자녀 진학 결정 (Odds ratio)	농촌 자녀 교육 시작 시기 결정 (Odds ratio)	농촌 자녀 교육 지속 여부 결정 (Odds ratio)
아버지의 나이	0.932***	1.016	1.012
부부간 나이차	1.006*	0.998	0.998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비취업)	--	0.646***	0.722***
어머니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0.989	--	--
아버지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1.050	--	--
어머니의 교육수준	0.765**	0.933	0.964
아버지의 교육수준	1.453***	1.197*	1.135
배우자 선택 양상 (중매/연애)	--	1.036	0.999
자녀의 수	0.652**	1.113*	1.295***
자녀의 성별 (1명 이상의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이 없는 경우)	1.172	1.283	1.031
자녀의 나이	1.049*	0.999	0.984
같이 거주하는 조부모의 수	1.327	0.840*	0.843*
Likelihood Ratio	56.798***	39.166***	37.261***
총 응답자	2350	3655	3380

주: \* p<.05, \*\*p<.01, \*\*\* p<.001

도시 가족에서 아버지의 자녀 진학 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

면, 아버지의 나이, 부부간 나이차,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부부 나이차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율이 높아진다. 반면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의 수는 아버지의 의사결정 참여와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 중 연구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 것은 아버지의 나이와 자녀의 수이다. 가설과 반대되는 자녀의 수의 영향력은 농촌 지역에 비하여 도시 지역에 한 자녀 정책이 엄격하게 실시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기본적으로 자녀의 수가 적고 따라서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져서 아버지의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설과 다르게 나타난 아버지 나이의 영향력은 도시 지역의 경우 자녀 진학 결정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뿐 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권력 행사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녀 교육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과 요구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변화하는 교육 제도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농촌 가족에서 ‘자녀 교육 시기 결정’과 ‘자녀 교육 지속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의 아버지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와 동거하는 조부모 수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아버지의 의사결정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자녀의 수는 아버지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자녀 교육 시작 시기 결정’항목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 가족에서 자녀 양육은 아직까지도 여성이 주된 책임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은 농촌 지역에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은 자녀 양육에 비하여 부모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아버지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르면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은 자녀 양육에 비하여 역할 구분에 대한 개념과 과정의 역동성이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권력 행사라는 개념과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의사결정에 대한 가치관과 역할 구분에 차이가 있다. 포커

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권력 행사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의 고려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 양육과 비교하면 아버지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그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직도 전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권력 행사와 연계시켜 생각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 활동에 비하여 시간 소요가 적은 점 등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자녀 양육과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연구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 일부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연구 가설 도출에 이용된 이론들이 서구에서 비롯된 점, 이론의 측정 도구로 이용한 변인이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은 점, 조사 대상 지역의 특성 등이 원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자녀 양육의 경우는 포괄하는 활동이 다양하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과 소요되는 시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녀 양육 전반에 대한 기존 가설이 세부 활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 가설과 다르게 나온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을 본문에서 잠정적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보조적인 역할로서 중국 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주제, 예를 들면 성역할 분담에 대한 가치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정의, 최근 10년간 사회 변화와 여성의 지위, 가족 내 성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해에서는 총 9그룹, 산둥에서는 총 6그룹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가).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교육 기관들의 접촉을 통하여 응답자 모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단 내 응답자들의 연령 구성과 경제적인 배경은 비교적 유사하였다. 또한 논의된 주제가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것이 아니고 자녀와 관련된 역할 수행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한

7) 상해에서는 여자 4그룹, 남자 3그룹, 그리고 나머지 2그룹은 남녀 반반의 비율로 섞여서 함께 인터뷰를 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남녀 함께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이 그룹 인터뷰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둥에서는 남자 3그룹, 여자 3그룹으로 구분되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한 그룹은 6-8명으로 구성되어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주로 해당 기관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고 약 2-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시에 연구자도 참여하였으나 실질적인 진행은 중국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것이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성역할 분담이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 응답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우리는 매우 민주적이다”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실제 생활과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가족에서의 성역할 수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해와 산둥 지역의 응답자 모두 동의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자녀 양육 참여가 아버지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 활동보다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거주 지역과 응답자의 연령 구성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정의와 실제 역할 수행,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를 나타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내용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표 7>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 동의	가치관 혼재	성역할 분리 가치관 약화
상해	유아원, 유치원 자녀집단			M, F
	초등학교 자녀집단			T, F, F, M
	중고등학교 자녀집단		M	T, F
산둥	유아원, 유치원 자녀집단		M	F
	초등학교 자녀집단		M, F	
	중고등학교 자녀집단	M	F	

주: M은 남성집단, F는 여성집단, T는 남녀 혼재집단을 나타낸다.

상해 응답자 집단 중 한 개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에 대하여 반대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해 여성 응답자 30명 중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을 남편과 동등한 경제 부양자로 생각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기존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일을 보조

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의 일과 동등한 중요성과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Short et al, 2002). 이러한 경향성은 이 연구의 상해 지역에서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젊은 연령의 응답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그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경제 부양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돌본다는 가치관은 거의 없어졌어요. 누구든 시간 있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거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시간 있는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같이 하는 거죠(35세 취업 여성, 1남).

자녀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구분되는 건 없어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일이 분담되죠. 부인보다 내 직장이 집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점심을 같이 먹고 일찍 와서 같이 숙제를 봐주는 등의 일들이 다 내 몫이에요(38세 남, 1남).

그러나 40대 중후반 남성으로 이루어진 한 집단은 현재 남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집안일도 분담을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에 더 능숙하고 따라서 남성보다 자녀 양육과 가사에 더 시간을 쏟고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반면, 산동 지역의 응답자들은 과거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이 약해졌음과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 참여가 늘어났음은 인정했으나,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구분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동의하거나 자녀 양육을 분담은 하지 않되 남녀 역할이 구분된다는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음과,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되는 자녀 양육 활동이 달라지는 것과도 연관 있음이 지적되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구분되는 남녀 역할에 대한 의견도 아버지가 담당하는 역할은 더 중요한 것, 더 큰 일로,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은 사사로운 것, 작은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응답에서 드러났다.

물론 요즘은 남녀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역할 구분이 약해지긴 했죠. 그래도 아직도 남자가 주 경제 부양자이고 여자가 자녀 양육과 집안일의

주 책임자라는 생각은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경제적인 보수도 더 많이 받고...(36세 취업여성, 1녀).

남녀의 역할이 꼭 경제 부양과 집안일로 나뉘지는 않는다 해도,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것에서 남녀 활동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거나, 장래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 큰일을 맡는 편이고, 어머니는 일상생활을 챙겨주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작은 일들을 맡는 편이죠(35세 남, 1남).

아이가 어릴 때는 못 느꼈는데 아이가 크다보니 더구나 아들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아이 교육이나 진로 문제, 기본적인 가치관 교육 등을 아버지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나뉘게 되고 남편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나는 뒤치다꺼리를 하게 되죠(43세 취업 여성, 1남).

의사결정 과정은 자녀 양육에 비하여 다소 복잡한 양상을 나타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제시된다(<표 8> 참조).

<표 8> 의사결정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

		의사결정을 권력 행사로 여김	가치관 혼재	의사결정을 권력 행사로 여기지 않음
상해	유아원, 유치원 자녀집단			M, F
	초등학교 자녀집단			T, F, F, M
	중고등학교 자녀집단		M, T	F
산둥	유아원, 유치원 자녀집단		M, F	
	초등학교 자녀집단	M	F	
	중고등학교 자녀집단	M, F		

주: M은 남성집단, F는 여성집단, T는 남녀 혼재집단을 나타낸다.

상해 지역의 대다수 응답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권력 행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40대 중후반으로 구성된 연령 집단의 경우

는 과거에 비하여 의사결정의 권력 행사 의미는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그 연관성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실은 시간 소요가 많이 요구되는 자녀 양육에 비하여 아버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높다는 것과, 자녀 교육에 관한 결정에서는 특히 자녀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권력 행사의 의미보다는 최선의 결정을 위해 아버지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두 집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사결정이 권력 행사의 일부로 여겨짐을 주장하였고, 나머지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반드시 권력 행사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는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정보와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부부 공동으로 참여는 하지만 어머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도 많음이 지적되었다.

산동 지역 응답자들은 상해 지역에 비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권력 행사로 여기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젊은 연령 집단은 의사결정 과정과 권력 행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의견에 등장하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에서 남성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외 연령 집단에서는 아직도 의사결정 과정은 권력 행사로 여겨지고 남성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의 폭이 넓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최근 10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발전을 위하여 1979년에 우선적으로 소수 동남 해안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였고, 이후 80년대 중반에 연해경제개방도시를 설치하여 해외 자본에의 개방과 경제 발전 시도를 확대하였다. 1991년에는 중국 전역을 개방한다는 목표하에 개방 지역을 더욱 확대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지역간 불균등 해소를 위하여 내륙 지방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꾸준히 경제 발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외국 기업들의 진출 증대와 시장 경제 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김종현, 박수경, 2002). 따라서 통계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수집된 1990년대 초반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실시된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도 보다 활발해졌다.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확대는 여성의 가족 내 지



위와 자녀 양육 분담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 중 하나는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특히 경쟁의 개념이 강하게 부각되어 자녀 교육에의 열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변화가 빠르고 계층 구조가 새롭게 정착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상승 이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중국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덧붙여 한 자녀 정책도 부모들의 강한 교육열과 자녀 양육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 분담은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고 여성의 가족 내 지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대비되는 의견은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 가치관의 도입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물질만능주의와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능력과 경쟁에 의한 성과급 제도가 보다 보편적으로 보급됨으로써 남성들의 근로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사회에 전통적 성역할 분리가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강조되던 과거에 비하여 개혁개방 이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장려가 약화된 점과 성별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점 등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Zuo(2003)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중국 도시 지역에서는 가족 전략의 하나로 부부 중 아내의 임금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짧고 일정한 공적 영역에 종사하고 남편은 임금이 높고 노동 시간이 긴 사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의 재등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제기되었다. 상해의 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옛날에야 일자리도 지정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받으니까 더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은 자기가 하는 대로 돈을 벌잖아요. 늦게까지 일하면 수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추가 노동은 주로 남자들이 하게 되죠. 누군가는 애들 때문에 저녁에 집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남게 되죠(42세 취업 여성).

산동의 한 응답자는 최근 중국 사회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동 인구의 경우, 농촌 지역의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이나 도시로 이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성역할 분리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 VI.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통합하여 중국 도시와 농촌 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을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와 의사결정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중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 책임은 아직도 주로 어머니에게 있음과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 양육의 경우는 도시 지역의 아버지들이 농촌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의사결정의 경우는 농촌 지역의 아버지들이 도시 지역의 아버지들에 비해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요소는 다양하지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어머니의 취업 관련 변수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어머니의 취업과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농촌 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버지의 나이와 중매혼이다. 도시 가족에서 자녀 학습지도 항목의 경우는 활동의 특성상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나이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아들일 경우 아버지가 자녀 학습지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에서 아들인 경우의 자녀 교육에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함을 알 수 있다.

도시 가족에서 아버지의 의사결정 참여에는 아버지의 나이,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가족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수, 동거하는 조부모의 수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촌 지역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것은 농촌 지역에서는 의사결정이 권력 행사로 간주되어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권력의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에 대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응답자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자녀 양육 부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지역의 응답자들과는 달리 산동 지역의 응답자들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산동 지역의 응답자들은 남성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과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최근 10년간의 변화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이 제시한 성역할 분담에 대한 상반되는 전망은 앞으로 연구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 분석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 가족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중국은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여성이 위의 활동들의 주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사회에서 조부모의(특히 조모의) 자녀 양육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Chen et al, 2000; Short et al, 2001a, 2002b), 이는 사회적 지원보다는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의 책임이 다시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여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가사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와 사회적인 지원 없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며 진정한 성 평등을 이루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대한 가치관과 실제 성역할 분담 수행은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의 가족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 나타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가족 내 여성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농업에 주로 의존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남성의 노동력이 중요시되고 가부장적 가치관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 내 지위가 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자녀 양육 분담과 자녀교육 관련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논의만 주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을 연구함으로써 중국 여성의 지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중국 도시와 농촌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가족을 연구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중국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라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중국

대륙의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사회변화 과정, 자료 수집의 미흡함과 자료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중국 사회를 연구하는 것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대륙의 거대함에서 비롯되는 지역별 문화 경제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연구는 중국 사회의 단편적인 한 측면만을 보일 뿐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대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도 결코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통합하려고 시도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제한 점도 있다. 완벽한 비교연구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도시와 농촌 지역간에 다른 설문지를 이용하였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와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질문지를 다르게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고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비교연구를 수행하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이 연구는 가용한 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하였으나 통합적 설명력이 약하다.

중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 등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추된 관심이었으나, 자녀 양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원이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앞으로의 연구는 부모와 조부모의 분담, 어린 자녀일 경우는 탁아소나 놀이방의 이용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면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 내의 분담과 사회적 지원의 측면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순영(1993), “여성의 지위 변화”, 《현대 중국 사회의 이해》, 장경섭 편, 사회문화연구소 pp. 309-356.
- 김종현, 박수경(2002), 《현대 중국의 이해》, 학고방.
- 이은숙 외(1999), 《여성 가족 사회》, 세영사.
- 장경섭(1995), “개혁사회주의의 성평향성”, 《여성학 논집》 12: 289-315.

- 한지아령(1999), “중국 여성 발전상에서의 국가의 역할”,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pp. 73-92.
- 함인희(1997), “현대 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2: 1-20.
- Baxter, Janeen (1992), “Power Attitude and Time: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3(2): 165-182.
- Bianchi, Suzanne M.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 401-414.
- Chen, Feinian, Short, Susan E., and Entwisle, Barbara (2000), “The Impact of Grandparental Proximity on Maternal Childcare in Chin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9: 571-590.
- Coltrane, Scott (1996), *Family Man: Fatherhood, Housework, and Gender Equalit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verman, Shelly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 Croll, Elizabeth (1983), *Chinese Women since Mao*, London: Zed books.
- Chu, G. C. (1993), *Modernization versus Revolution*, East-West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 Das Gupta, Monica, Lee, Sunhwa, Uberot, Patricia, Wang, Danning, Wang, Lihong, and Zhang, Xiaodan (2000), “State Policy and Women's Autonomy in China, S. Korea, India, 1950-2000: Lessons from contrasting Experienc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Los Angeles.
- Diamant, Neil J. (2000), *Revolutionizing the Famil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ldscheider, Frances K. and Waite, Linda J. (1991), *New Families, No Famil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ning, Emily (1985), “Socialist Revolution and Women's Liberation in China”, *Journal of Asian Studies* 44(2): 329-336.
- Kamo, Yoshinori (1994),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15(3): 348-378.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0), *Statistics of Social*

- Indicators*, Seoul, Korea.
- Lu, Zai Zai, Maume, David J., and Bellas, Marcia L. (2000), "Chinese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1(2): 191-215.
- Riley, Nancy E. (1994), "Interwoven Lives: Parents, Marriage, and Guanxi in Chin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791-803.
- \_\_\_\_\_ (1995), "Chinese Women's Lives: Rhetoric and Reality", *Asia Pacific Issues* No. 25. East-West Center.
- Ross, Catherine E. (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3):816-833.
- Short, Susan E., Zhai, Fengying, Xu, Siyuan, and Yang, Mingliang (2001), "China's One-Child Policy and the Care of Children: An Analysi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Social Forces* 79(3): 913-943.
- Short, Susan E., Chen, Feinian, Entwisle, Barbara, and Zhai, Fengying (2002), "Maternal Work and Child Care in China: A Multi-Method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1): 31-57.
- Stacey, J. (1983), *Patriarchy and Social Revolution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ate Statistical Bureau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8), *China Statistical Yearbook*, Hong Kong: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Tang, Wenfang and Parish, William L. (2000), *Chinese Urban Life under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ich, Adams Carolyn and Teich, Winston, Kathryn (1980), *Mothers at Work: Public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Sweden, and China*, New York: Longman Inc.
- Tsui, Ming (1989), "Changes in Chinese Urban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37-747.
- Weeks, Margaret R. (1989), "Virtuous Wives and Kind Mothers: Concepts of Women in Urban Chin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2(5): 505-518.
- Wolf, M. (1985), *Revolution Postponed: Women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Yi, Chin-Chun, Lu, Yu-Hsia, and Pan, Yun-Kang (2000), "Women's Family Status: A Comparison of the Family Power Structure in Taiwan and China", *Walking a Tightrope: meeting the Challenges of Work and Family* edited by Carol D. H. Harvey. Burlington USA: Ashgate.
- Zeng Yi and Wu Deqing (2000), "Regional Analysis of Divorce in China since 1980", *Demography* 37(2): 215-219.
- Zuo, Jiping (2003), "From Revolutionary Comrades to Gendered Partners: Marital Deconstruction of Breadwinning in Post-Mao Urban China", *Journal of Family Issues* 24(3): 314-337.